

오늘 도의회 하반기 첫 입시회

28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 돌입... 코로나19 확산 우려 업무보고 인원·시간 단축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제383회 입시회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특히,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시 집행부 참석 공무원을 실·국·과장 등으로 최소화하고, 업무보고 시간도 단축하는 등 입시회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식(군산2)·김대중(정읍2)·황영석(김제1)·두세훈(완주2)·최영규(익산14)·최영일(순창)·박용근(장수)·김만기(고창2)·조동용(군산3)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지역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성경찬 의원(고창)은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역 및 지방자치 현안을 정부 및 중앙 정치권 등

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연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윤리 조례안·동의안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예정이다.

제383회 입시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한다.

/유호상 기자

“노동존중 대통령 될 것”... 신고용노동정책 발표

‘대권 도전’ 정세균 전 총리 “노동·정치, 적대적 관계 아닌 상생·협력관계 재정립 노력”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6일 “노동존중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신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의 가치가 일상화되고, 국민의 힘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함께 의논하고 실현하는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이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노동과 정치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생과 타협의 관계로 재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선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신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해 ‘세대상생 고용협약’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기성세대 노사의 양보를 통한 세대 간 상생고용

우려를 감안, ‘공정한 전환’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신인이 전환되는 부문의 기업·노동자·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정한 노동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겠다”며 “사업전환, 근로자 고용안정, 지역 경제활성화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갑질문화 근절 등 합리적으로 노사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기업 내 ESG 경영을 정착시켜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에서 월급쟁이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대통령 정세균밖에 없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인 노동자 1만 명의 지지선언도 나왔다.

이들은 “노동자·시민과 기업인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민관정의 다양한 경험은 국가 발전의 지양분이 될 것”이라며 “정세균의 승리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폐단을 청산하면서 차별을 해소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뉴시스

이제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대세’

정읍 관광 활성화와 정책토론회 내장산 국립공원 발전 방향성 빅데이터 분석 등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향 발표

민주 윤준병 의원 “올 하반기 내 내장산가 관광호텔 진행 절차 등 개최 계기로 관광 활성화 이끌어 가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정읍시 내장산생태탐방원 강당에서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정읍시 내장산생태탐방원 강당에서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우리 정읍은 천혜의 자연 자원, 역사적인 유산, 문화적인 유산 등을 타지역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원들을 관광산업에 잘 접목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다시 오고 싶은 정읍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먹고 자고 보고 즐기는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읍은 내장산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내장산가 주변 관광호텔 건설 등의 지역 숙원사업 문제를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빠르면 오는 8월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에는 그동안 우리 정읍시민들이 오랜기간 소망했던 내장산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내장산가 관광호텔 진행 절차 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계기를 활용해 정읍 관광 활성화를 잘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보다 나은 정읍이 눈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랜플러스 컨설팅 서용진 소장이 ‘내장산 국립공원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내장산 국립공원이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 한양사이버대학교 박상현 교수는 외지인이 바라보는 정읍 관광이라는 시점으로 ‘정읍관광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읍 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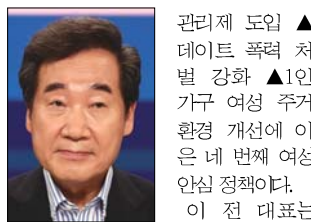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전주대학교 송광인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북도청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시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 우석대학교 강순화 교수, 원광보건대학교 소재민 교수가 패널로 나서 정읍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결사유준병’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공했다. /유호상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자궁경부암 백신, 26세 여성까지 무료 접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자궁경부암 HPV 백신 무료접종 연령대를 현행 12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높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앞서 ▲변형 카메라(플카)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 환경 개선에 이은 네 번째 여성 안심 정책이다. 이 전 대표는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금수저 백신’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들린다”며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도의회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제75호’ 발간

내년 시행 개정지방자치법 소개 올 상반기 의회 활동 결산 등 담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의정활동 소식지인 ‘전라북도의회 2021 여름 제75호’가 발간됐다.

제75호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내용이 소개됐으며, 도의회 2021년 상반기 활동을 정리한 결산 자료가 실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단체장에 조례 제정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초대발안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도 커진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82회와 입시회와 제383회 입시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내용도 소개됐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상용차산업 위기극복방안 마련과 진안지역 공공의료 확충, 전주 에코시티 과밀화급해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자재 관광 자원 활용방안 모색과 이동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도 제언했다.

도의회에서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채택한 건의·결의문과 2분기 등

안 이뤄진 조례제·개정 내용도 소개됐다.

오광근 간행물편집위원장은 “75호에는 지난 2분기동안 도의회에서 이뤄진 다양한 의정활동이 소개됐다”며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은 QR코드를 읽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소식지 전 내용을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m.jonbuk.kr)로 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이종호수 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이종호수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영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살피며 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과 각종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행정위 위원들은 “도서관 본연의 목적인 독서공간을 넘어 이종호수도서관을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원들은 이종호수라는 천혜의 산책로를 통해 자연을 향유하고 배움을 쌓는 지식의 산실이자 하나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만들 것도 주문했다.

김영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나온 당부사항을 건립 공사에 적극 반영해 이종호수도서관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인문도시 전주의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2021년 7월 19일 월요일